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체계적 지원 나선다

전주시, 2024년까지 연간 4억3000여 만원 투입 장애인 60명 자립 지원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연간 4억3000여만 원씩을 투입해 장애인 60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입소대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이다. 북

부지는 지난 4월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주거 △일자리 △복지 등 3개 분야의 유관기관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자립지원TF팀'도 신설했다.

시는 향후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수행기관인 '자립전환 거점센터'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립전환 거점센터는 △자립 지원인력 제공 △지역사회 자립 준비·전환·정착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지역사회 관련 상담·교육, 탈시설 자립교육 전수조사 △시설거주 자립희망 장애인 개인별 자립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자립전환 거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민·관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 선정과 자원연계 협의,

개인별 지원 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공공매입 임대 주택 연계 △주간활동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연장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응급알림 서비스 제공 등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지역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재즈의 본고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만날 수 있는 정통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전주 곳곳서 만나는 재즈 선율

시, 17~19일 '제1회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재즈의 본고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만날 수 있는 정통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전주시는 국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등 거리 곳곳에서 '제1회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JSJF: Jeonju Street Jazz Festival)'을 개최한다.

'재즈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전주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정통재즈를 코로나19로 공연관람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거리축제라는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설무대가 마련되는 전주 한옥마을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3일간 메인공연이 펼쳐지고, 마루 달 야외무대와 대시습청 앞에서는 축제 내내 미니공연도 만날 수 있다.

개막일인 17일 메인무대에는 공연의 헤드라이너로 전주스트리트 재즈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이기도 한 임인건밴드와 소울곡목 BMK가 출연하며, 18일에는 재즈디바 말로와 뉴올리언스의 제임스앤드류스 크리센트 시티 울스타스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진다.

제임스 앤드류스는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재즈가수 출신으로 트럼본 소리를 동생으로 두고 있으며,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마비된 뉴올리언스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뮤지션 중 한명이기도 하다.

/김윤상기자

끝으로 축제의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빅밴드인 브라소닛 빅밴드와 이견희 퀸텟 등의 연주가 이어진다.

행사기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의 미니스테이지 두 곳에서 공연은 계속된다. 한옥마을 거리를 무대로 한 미8군 재즈악단과 Horn Tony(호른 토니)의 마칭퍼레이드는 전주한옥마을을 재즈로 수놓을 예정이며, 김성수·김주환·황대귀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의 공연도 메인스테이지와 미니스테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주 관광의 외연 확장을 위해 남부시장 청년들과 객리단길, 전북혁신도시 등 도시 곳곳에서 재즈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요진 재즈도스트의 재즈 강연이 페스티벌기간 동안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진행되고, 재즈분위기를 입힌 컨트리뷰션관으로 탐바콧 청년몰에서는 포토포도 운영된다.

'제1회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의 세부 일정 및 출연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제 누리집(www.jonjujaz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옛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꾼 탄생

시, 효자도서관서 '제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 개최·총 20명 수상자 선정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20명의 이야기꾼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9일 효자도서관 강당에서 '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를 개최하고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전주 옛이야기 대회는 전주의 정체성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옛이야기를 발굴해 시민들과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대회다. 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 총 33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날 본 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만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구경으로 내려오는 전주 지역 동네이야기 △전주 지역 설화(전설·신화·민담)에 관한 이야기 △최고 100년 이내 전주의 산업, 경제, 문화 등 생활 이야기 등을 이야기 소재로 삼았다.

이들은 △용머리 마을 대보름 잔치 △전주천 각시바위 △남고산의 호랑



전주시는 9일 효자도서관 강당에서 '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를 개최하고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바위 △수왕사 쌀바위 설화 등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주의

옛이야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사위원들과 함께 △표현력 △내용 △태도 △반응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상 이미래씨, △최우수상 김지환씨, △우수상 송호숙씨, 이금자씨, 이승자씨 △장려상 1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회의 수상자들에게는 전주시장상과 함께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의 시상금도 주어졌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문집으로 제작해 미래 전주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가 마련하는 이야기꾼 교육을 받은 후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한문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2 전주독서대전'에서 전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주시 최라씨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대회에서 발굴된 보석 같은 전주 옛이야기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 옛이야기꾼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갖고 닦은 것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7일~7월 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

유세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약 3만여 세대로 추정되며, 개별 명단은 보건복지부가 6월 둘째 주에 통보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의료 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별로 나누어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수별 1회에 한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가구별 지원액 확장과 카드 제작, 대상자 사전 문자전송 및 개별안내문 발송 등 신속한 사전준비를 거쳐 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는 오는 27일부터 대상 가구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휴·향락·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카드사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자결별(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아동양육비한부모) 및 가구원(1~7인)수에 따라 총 14가지 종류의 선불형 카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개별 방문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예외적으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된다.

시는 신청기간 첫 주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생년월일 끝자

리에 따라 요일제(월·12/ 화·3,4/ 수·5,6/ 목·7,8/ 금·9,10)로 신청을 받고, 이후 둘째 주부터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대상 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 한시보조인력을 1개월간 배치해 카드 배부와 행복을 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 기간 내 수시로 카드 수령현황을 점검해 수령률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미수령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태원준 여행작가 '지금 바로 세계여행' 특강

전주 찻마중길여행자도서관서 진행

전주시는 9일 전주역 앞 찻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태원준 여행작가를 초청해 '지금 바로 세계여행' 특강을 실시했다.

'판타스틱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태원준 작가는 압도적인 대자연과 고대문명이 공존하는 멕시코와 쿠바,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대륙의 여행지와 문화 및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여행지를 소개하며 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도왔다.

이날 함께한 태원준 작가는 60세 어머니와 함께 70개국을 여행하고,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를 출간한 여행작가다. 그는 △KBS '강연 100%'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EBS '세계테마기행'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한 작가로 손꼽힌다. 강연 이후에는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 해소를 돕기도 했다.

시는 이날 특강에 이어 △배나영 여행작가(7월 7일) △박성호 여행작가(8월 11일) △노미경 여행작가(9월 6일) △윤정인 여행작가(10월 6일) △문상건 여행작가(11월 10일) △유성용 여행작가(12월 8일) 등 유명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 홍보

전주시보건소,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펼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9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보건소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전 광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치과과의사와 함께하는 구강상담 및 검진 △치실교육 △프로토포톤 운영 등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소는 또 구강건강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 비만, 절주, 영양) △금연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시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교육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 의치(틀니)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반월동에 덕진권역 최초 종합사회복지관 조성

전주시, '큰나무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후 10월 개관 예정

전주시 덕진권역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반월동에 들어선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덕진구 반월동에 건립 중인 큰나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큰나무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전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모두 완공에 관동된 복지시설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덕진권역에 건립되는 첫 종합사회복지관이다.

큰나무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97억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날 말 준공

후 집기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청소년과 노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다.

위탁 법인은 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김윤상기자